

제2장

서구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

【 학습목표 】

서구 박물관의 역사는 곧 박물관을 통한 교육의 역사였다. 17세기를 기준으로, 17세기 이전의 유사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그 이후 박물관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7세기를 기준으로 이전의 유사박물관과 이후의 박물관을 구분하고 그들의 교육적 역할을 이해한다.
2. 공공 박물관의 탄생 배경과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원인을 이해한다.
3. 20세기 이후의 서구 박물관교육의 흐름을 파악한다.

【 주요어휘 】

서구 박물관(미술관), 박물관교육, 역사, 유사박물관, 공공 박물관, 관람자

I. 서론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이 갖는 고유의 기능과 교육의 기본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서 “기관이자 공간인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백령, 2005, p. 1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물관교육은 그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다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서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칭하고, 광의의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Hooper-Greenhill, 1994a). 이 책에서는 박물관교육을 “수장품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활동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는”(백령, 2005, p. 19) 활동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모든 박물관 활동을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적 봉사”(김인희, 2001, p. 299)로 규정한다.

서구에서 ‘museum’이라는 용어가 현재와 같은 의미의 ‘박물관’이라는 기관을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시대 이후부터, 정확히는 17세기부터이다.¹⁾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서구 박물관교육의 역사는 17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museum’이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등장하였다. 또한 박물관과 유사한 역할을 가지면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 기관들도 서구 역사를 통하여 존재해왔다. 따라서 서구에서 박물관교육은 17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다양한 교육적 전통이 특정한 시대적 환경에 자극받아 정형화·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 박물관

1) 서구에서 ‘museum’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정의에 따르면 ‘박물관(museum)’은 미술관(gallery)이나 다른 종류의 전시 시설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또한 언어별로 보자면 영어에서는 박물관은 유물을,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기관을 일컫는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musée’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 전시 기관을 뜻하는 용어이고, ‘galerie’는 상업적인 화랑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ICOM의 정의를 원용하여 ‘박물관(미술관)교육’을 이하 박물관교육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교육의 역사를 17세기 이후로 한정짓는 것은 박물관교육이 지닌 연속성과 그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구 역사에서 17세기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전 시기에 ‘museum(박물관)’과 어원적·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유사박물관’으로 명명하고 그 교육적 기능을 살펴본다. 17세기 이후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museum education(박물관교육)’의 발전 과정과 현재 서구 박물관교육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²⁾

II. 서구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³⁾

1. 고대 및 중세시대의 박물관교육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고대 그리스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무세이온(Mουσειόν: Mouseion)⁴⁾은 문학과 예술을 관장하는 뮤즈(Muse) 여신들을 위한 신전이였다(Jones, 1940). 따라서 무세이온은 예술작품의 관람이나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박물관의 역사에서 그 시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원전 28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설립한 무세이온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은 그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기관도 아니

2) 이 글에서 서구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에 대해 통시 및 공시적으로 고찰하였으나, 근대 이후 시기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현대 서구 박물관교육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까닭도 있으나 언어와 자료상의 제한으로 다른 서구 국가들의 경우를 자세히 다루지 못한 한계도 있었음을 밝혀둔다.

3) 서양사 시대 구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까지를 고대, 14세기 르네상스의 태동까지를 중세,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를 근세 및 근대, 그리고 그 이후를 현대로 구분하였다.

4) 이 글에서 고대 그리스의 ‘Μουσειόν(Mouseion)’에 대한 한국어 표기는 그리스어 발음대로 ‘무세이온’이라 한다.

었으며, 성격상으로도 연구소나 도서관에 가까웠다(서원주, 2007; Casson, 2001).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다른 여러 교육 기관들이 무세이온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연구소나 학교의 성격이 강했으며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시움’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서원주, 2007).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세이온과 같은 공공 장소에 전리품 및 역사적 사건이나 일상에 대한 그림을 전시하였다. 이를 박물관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석영(2004, p. 15)은 “유사박물관” 또는 “박물관의 고형태(古形態)”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박물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전시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연활동이나 인간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교육적 기능’이 수반된다(송동근, 양홍석, 최석영, 2002, p. 113). 따라서 그리스의 무세이온과 같이 전시 기능을 가진 고대의 기관들은 박물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어 ‘무세이온’은 로마시대에 라틴어로 ‘무제움(Museum)’⁵⁾이라고 번역되었다(Lewis, 1879, p.1179). 로마문화는 그리스 헬레니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실제적인 문화’로서 일상생활과 실용 가치를 존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Lewis, 1992; 차하순, 1991), 그리스와 같은 본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museum’은 등장하지 않았다. 로마시대의 무제움은 ‘철학적 토론을 나누는 저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Bazin, 1967). 무제움이 철학을 토론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곳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서원주, 2007).

대신 로마시대에 박물관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사박물관은 신전이였다. 지중해지역을 정복한 제국이자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넓은 통치지역의 다양한 토속신들을 받아들여 무수한 신전을 세웠다. 로마의 귀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수집한 조각이나 미술작품을 대중에게 전시하도록 회사하

5) 그리스어의 무세이온(Mουσείον)은 라틴어로 무제움(Museum)과 무지움(Musium), 두 가지로 번역되어 쓰였으나 이 글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인 ‘무제움’을 선택하기로 한다.

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노성두, 2004), 신전과 같은 공공장소에는 외지의 진기한 물품이나 전리품 등이 기증되어 전시되었다(Lewis, 1992).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박물관이라고 명명된 기관이 더 이상 유럽에 등장하지 않자 중세시대에는 유럽에서 박물관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게 되었다(Burcaw, 1997).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로마시대의 무제움은 현대적인 의미의 박물관이기보다는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신전이 기능적으로 박물관에 더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세시대에도 종교 시설이 어느 정도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했으리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받은 그리스도교는 중세를 통하여 그 정치·문화적 영향력이 극대화되었고, 교육의 권위가 국가에서 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본질상 현세가 아닌 그리스도교적 내세에 있게 되었다(Boyd, 2008; Davies, 1997).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로마풍의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귀족이 유럽 도처에 있었지만 6세기에 이르면 문예적 교양을 갖춘 귀족은 유럽에서 거의 사라졌고(Hauser, 1999a)⁶⁾, ‘세속적인 이교도의 문화’인 그리스·로마의 유물은 교회에서 거의 수집되지 않았다. 대신에 교회와 수도원에서는 성유물과 종교예술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였고,⁷⁾ 일부 교회와 수도원의 수집품은 바티칸박물관과 같이 현대적인 박물관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사실 시설의 이용 양태로 보자면 귀중한 성유물에 참배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했던 중세의 그리스도교 신도들과 유명한 유물이나 예술

6) 8~9세기에 프랑크 왕이자 서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롤루스 대제(샤를마뉴 대제)는 문예적 교양을 가진 중세시대의 군주로서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위 기간 이후에는 궁정문화가 쇠퇴하고 교회와 수도원이 그 위상을 이어받아 학문, 미술, 문학의 거점이 되었다(Hauser, 1999a).

7) 콕브리치(1997)는 중세시대에도 고대의 예술을 동경하고 이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성직자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이 반복된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시기의 예술이 전적으로 종교에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위한 성의 건축에는 세속적인 예술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하우저(1999a)가 지적하듯이 그러한 중세 세속 예술도 로마시대 후기 예술을 모방하는 차원이었고, 인간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예술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작품을 보기 위해 세계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는 현대의 관람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서원주, 2007).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대의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경배”한다고 볼 수 있다(Schwanitz, 2001, p.423). 따라서 중세의 교회와 수도원은 종교 시설이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했던 그리스·로마의 전통을 따른 ‘유사박물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시대의 유사박물관인 교회와 수도원의 특징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전시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예술작품들의 미적 가치가 제일 중요시되었지만, 중세시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예술은 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Hauser, 1999a).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예술작품이 선전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전적으로 사상이나 교리를 주입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교 사상과 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중세 예술관은 많은 신도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화를 위해서 예술작품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처럼 훈시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5~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Gombrich, 1997)와 “교회의 그림과 장식은 민중을 위한 강의이고 독서이다”라고 정의한 12~13세기 프랑스 스콜라 신학자인 뒤랑뒤(Durandus) 주교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Hauser, 1999a, p. 185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유사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근세 및 근대의 박물관교육

그리스·로마의 문명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르네상스시대에는 인문주의적 교양이 중요시됨에 따라 종교미술을 제외한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보

는 시각에서 자유로워졌다. 또한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세계 각지로부터 희귀한 물품이 유럽으로 대거 반입되었다. 서구의 귀족들과 부호들은 고대 예술작품과 성유물, 박제나 지질학 표본 등 희귀한 물품을 수집하여 개인 소장품을 만들었다(Burcaw, 1997).

이러한 소장품들은 보통 저택 내부에 마련된 전시실에 진열되었는데 이를 영어권에서는 ‘Cabinet of Curiosities’, 독일어권에서는 ‘분더캄머(Wunderkammer)’, 즉 ‘경이로운 방’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경이로운 방’이라는 표현은 여흥을 추구하는 경박한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보다 점잖은 ‘예술품의 방(Kunstkammer, 쿤스트캄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였다(Burcaw, 1997; 전진성, 2004). 이것은 현대 박물관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 ‘경이로운 방’은 나중에 박물관이 되었다. 특히, 예술품 중심의 경이로운 방은 미술관으로 골동품 중심은 박물관

© The Warburg Institute



[그림1] 경이로운 방(Wunderkammer)

관으로 발전하였다(Giraudy and Bouilhet, 1996). 아래 [그림1]은 경이

로운 방을 묘사한 최초의 삽화 기록이다. 16세기 이탈리아 나폴리의 약제사인 페란테 임페라토(Ferrante Imperato)의 개인 소장품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연사박물관과 유사한 수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렌체의 메디치(Medici)가문, 역대 교황,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와 같은 일부 수집가들은 취미활동으로 또는 위세를 높이기 위해 방대한 수집품을 축적하였는데 그 수집품은 각각 우피치미술관과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루브르박물관의 전신이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각한 서유럽인들은 세계 탐험과 종교개혁을 통해 인본주의적 관점을 심화해나갔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자각이 심화되어 17~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김인회, 2002).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이성을 통한 진리의 탐구를 통해서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유럽 지식인들은 유럽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견학하고 르네상스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그랜드투어(Grand Tour)’라는 장기간의 수학여행을 떠났다. 초기에는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유럽 대륙, 특히 이탈리아 문명을 체험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점차 유럽 전체와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 사이에서까지도 유행하게 되었다(Black, 2003). 이들은 학식이 뛰어난 가정교사와 함께 고대 유적과 유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고대 문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유럽대륙을 여행하였고, 이때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온 고대 유물들은 후에 서구 박물관의 주요 수장품이 되었다.

공공 박물관(public museum)⁸⁾의 등장은 박물관사 및 박물관교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강조된 근대 박물관은 일반 대중에게 전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1683년에 애쉬물 등이 옥스포드대학에 기증한 수집품을 바탕으로 애쉬물리안박물관(Ash-

8) 영어의 ‘public museum’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우선 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국·공립박물관’과 운영 목적을 기준으로 한 ‘공공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있고, 방문자를 기준으로 ‘대중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molean Museum)이 설립됨으로써 ‘Museum’이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현재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Burcaw 1997). 이 박물관에는 도서관과 강의실, 화학 실험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경이로운 방’과 같은 형태의 초기 박물관도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관람은 사적인 경로로 이루어졌고, 안내하는 하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Alexander, 2007).

영국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1753년 설립)⁹⁾이나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1793년 설립)을 통해 유럽에서 공공 박물관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대영박물관의 경우 18세기 개관 당시부터 공공 박물관을 표방하고 현재까지 250여 년간 일반 대중을 위한 무료입장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Wilson, 2002) 교육 기회

© The Warburg Institute



EXPOSITION AU SALON DE LOUVRE EN 1787.
Gravure de Claude Bernet d'après un dessin de Pietro Antonio Martini représentant l'exposition du Salon de 1787

[그림2] 루브르박물관의 관람객(1787년)

의 확장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18세기의 박물관은 대부분 중산

9) 지금 우리나라에서 ‘The British Museum’이라는 영어 명칭이 ‘대영박물관’과 ‘영국박물관’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현재 The British Museum 측에서 한·중·일 공식 외국어 명칭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영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The British Museum, 2004).

층과 상류층을 위한 장소였다. 예를 들어 당시에 대영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전도유망한’ 신분의 관람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장권을 받아야 했고, 관람 시간도 두 시간으로 제한되었다(Wilson, 2002; Burcaw, 1997).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 박물관의 시초는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이다. 프랑스 대혁명¹⁰⁾은 ‘가르치는 국가’의 이념을 선포하였고 이후 교육문제를 국가가 주도하여 관장하였다(Boyd, 2008).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의회가 왕실 소속이었던 고전 예술품들을 예술가들과 일반 대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루브르박물관은 그 운영을 혁명정부의 교육부에서 맡았다(Hooper-Greenhill, 1994a; Hooper-Greenhill, 1991). 이후부터 수장품은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Giraudy and Bouilhet, 1996), 박물관은 시민 계급이 만들어낸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Schwanitz, 2001).

또한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일주일에 며칠간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다(Hooper-Greenhill, 1994a: p. 10에서 재인용).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의 예술작품을 접하려면 그랜드투어와 같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거나 왕실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수집품을 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일반 예술가나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혁명 이후에는 걸작들이 루브르박물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일반 예술가들이 걸작 예술품들을 감상하거나 쉽게 모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예술교육의 민주화에도 기여하였다(Hauser, 1999b).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공 박물관은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교육은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었다(Bennett, 1995; Hooper-Greenhill, 1994a, p. 16). 19세기 중반부터는 일반 대중의 박물관 관람이 본격적으

10)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혁명, 1830년 7월 혁명 및 1848년 2월 혁명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나, 일반적으로는 봉건적 특권이 처음으로 폐지된 1789년 7월 혁명을 가리킨다(Davies, 1997). 이 글에서는 1789년의 혁명을 특정하여 ‘프랑스 대혁명’(차하순, 1991)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 허용되었고, 박물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문 박물관이 출현하였다. 1852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의 사우스켄싱턴박물관(현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은 1851년에 개최된 런던 대박람회(The Great Exhibition)의 전시품 중 반환되지 않은 유물을 영구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이전과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을 기관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였다(차문성, 2008; Davis, 1999; Hooper-Greenhill, 1991). 19세기 이후로 박물관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학습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으로 명실 공히 인정받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빅토리아시대에 노동자 계층의 박물관 방문을 허가한 이유에는 노동력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었고, 방문 시간도 일요일 오후로 제한된 것이 일반적이었다(Hooper-Greenhill, 1994a). 또한 이 당시에 박물관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했던 외부 요인도 작용하였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일어난 서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미국의 독립이다. 1788년에 미국 헌법이 비준되어 1789년에 초대 상하원 의회가 출범하고, 조지 워싱턴이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미국독립 이전인 1773년에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미국 최초의 박물관인 찰스턴박물관(The Charleston Museum)이 설립되었고(이난영, 2006), 1846년에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The Smithsonian Institution) 설립에 대한 법률이 미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1855년에 개관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본격적인 박물관의 출현은 1870년에 설립된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을 기점으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나타났다(Weil, 2002; Hein, 2000). 그러나 미국 박물관들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박물관교육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부관장이었던 조지 구드는 공공 박물관의 목적은 다중을 계몽하고 교육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고,

1908~1933년 미국 자연사박물관 관장이었던 헨리 오스본은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집이 아닌 교육이며 박물관 직원은 특수한 신분의 교육자라고 주장했다(Alexander, 1997).

3. 현대의 박물관교육과 논의점

한편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최고의 번성기이자 탐구정신이 충만했던 빅토리아시대(Victorian Era)¹¹⁾가 끝나가며(박지향, 1997) 박물관을 전문화층과 지식의 탐구를 위한 교육적 기관으로 보았던 사회적 시각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마침 세계 각지의 식민지로부터 들여온 방대한 양의 수집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물의 보존과 연구가 큐레이터의 주요 업무가 되었고, 그들은 박물관의 위상을 중요 유물이 보존·전시되는 기관으로서 재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Hooper-Greenhill, 1991). 따라서 1920년대 이후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교육은 박물관의 다른 여러 기능 중의 일부로써 인식하게 되었다(Hooper-Greenhill, 1991).

당시에 박물관교육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대두되는데 바로 “누가 박물관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1895년에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주간학교의 조례가 개정되어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할 경우 이를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였다(Hooper-Greenhill, 1991). 이후 학생들의 박물관 관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은 유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curator)들이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큐레이터들은 자신이 훈련받은

11) 빅토리아시대는 영국 빅토리아(Victoria) 여왕의 재위 기간으로 즉위일인 1819년 5월 24일부터 승하일인 1901년 1월 22일까지를 말한다.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스러워했다(Hooper-Greenhill, 1991). 이러한 논쟁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결국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학예연구(curation)와 교육(education)이 별개의 업무로 분리되어 에듀케이터(educator)¹²⁾라는 별도의 교육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1880년대까지 서구사회에서 대부분의 박물관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었다(Woodhead and Stansfield, 1994).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박물관이 건립되어 교육과 연구에 이바지하기 시작했다. 1843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국립지리원의 부속 기관으로서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었다(Woodhead and Stansfield, 1994). 19세기 말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이라는 형태의 박물관이 등장하였는데 노르웨이의 오스카 2세 컬렉션(Oscar II's Collection, 1881년 설립)이나 스웨덴의 스칸센박물관(Skanssen, 1890년 설립) 등을 들 수 있다(이난영, 2006). 이러한 박물관들은 기존의 유럽 박물관처럼 고대 예술작품이나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민속박물관의 기능을 하였다(Giraudy and Bouilhet, 1996). 1909년에는 영국 사우스켄싱턴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이 소장했던 이·공학 자료가 분리되어 과학박물관이 건립되었다(이난영, 2006). 미국에서는 신대륙 특유의 적극성과 활기로 박물관의 활동이 왕성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862년의 모릴 법이 제정된 이후 기부금과 유물의 기부가 활성화 되었다(Boyd, 2008).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핸즈-온(hands-on) 전시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전시해설사(docent)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임종덕, 2001;

12) 박물관교육을 담당하는 학예 연구사는 영어권에서만도 ‘Educator’, ‘Education Officer’, ‘Educationist’, ‘Education Staff’, ‘Museum Teach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에듀케이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Hooper-Greenhill, 1994a).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기간에는 많은 수의 학교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교사들은 징집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물자가 부족했다(Davies, 1997; Hooper-Greenhill, 1994a).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박물관은 내부에 교실을 마련하여 학교 수업을 대체하거나 전시를 통하여 보건과 복지 캠페인에 기여하였다(Hooper-Greenhill, 1994a). 영국에서는 1918년에 새로운 교육법이 제정되어 학교 차원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이 박물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Hooper-Greenhill, 1994a). 그러나 학교 중심의 공공교육이 발전하면서 사회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축소되어 박물관교육을 학교교육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교육은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남아 있었고, 큐레이터 역시 박물관교육을 자신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었다(Hooper-Greenhill, 1994a).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어 박물관은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1960년대까지 교육은 박물관의 하위 기능 중의 하나로 평가 절하되었고 에듀케이터가 임명된 박물관에서는 큐레이터가 교육 업무를 방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Hooper-Greenhill, 1994a). 결국 큐레이터는 박물관교육 업무와 분리되어 유물의 전시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려 하였고, 에듀케이터는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대규모 국립박물관에서는 성인을 위한 전시 안내를, 지역박물관에서는 학생들의 견학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유물 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63년에 영국에서는 박물관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한 로즈 보고서(The Rosse Report)가 발간되었고, 이후 1960년대 말부터 교육적인 목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9년에 개관한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움(The Exploratorium) 과학박

물관 창립자인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학교교육과 박물관교육의 차이에 주목하고 학교가 2차원적이고 강의 위주의 의무교육을 하는데 비하여 박물관은 3차원적이고 쌍방적인 비형식 교육을 한다고 주장하였다(Alexander, 1997). 1970년대 박물관교육의 주요 화제는 환경교육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이 박물관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0~1980년대 독일에서는 박물관교육이 주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Graf, 1994). 점차 서구 박물관에서는 관람자에게 실물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 경험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시의 양상이 변화되었다(김인희, 2009; Hein, 2000). 따라서 관람자와의 ‘소통’이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었다(Hooper-Greenhill, 1991). 그러나 1980년대까지는 정부나 박물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소통을 위한 박물관 정책을 수립했다기보다는 박물관 내부에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들이 각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행한 편이었다(Hooper-Greenhill, 1991).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다시 강화되어 거의 모든 분야의 박물관 업무에서 교육적 기능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소장품 수를 더 늘리기보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Hooper-Greenhill, 1994b). 1991년 영국의 박물관·미술관위원회(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는 모든 박물관이 주어진 지침에 따라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박물관과 일반 대중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자 박물관의 모든 업무 분야에 걸쳐서 교육적 의미가 다시 강조되었으며 에듀케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Hooper-Greenhill, 1991).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박물관의 성격과 조직에 따라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를 보면 대영박물관에서는 교육실장이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 기획이나 전시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자연사박물관

관에서는 에듀케이터들이 교육용 자료를 제작, 평가하거나 교사를 상대하는 일을 담당하고, 호니만박물관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일을 전담한다(Hooper-Greenhill, 1994a).

이때 서구 박물관교육 학계에서 나타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영국과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학습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 레스터대학교 교수 에일린 후퍼그린힐의 『The Museum and Gallery Education』(1994[1991]) 및 미국 학습 혁신연구소의 존 포크(John H. Falk)와 린 디어킹(Lynn D. Dierking)의 『The Museum Experience』(1992)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발표

© 서원주



[그림3] 박물관교육의 현장, 프랑스 퐁피두센터

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후퍼그린힐 편저의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1999[1994])에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관람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1997년에 ‘하인-마일즈 논쟁(Hein-Miles Debate)’이 일어났다. 이는 미국 레슬리대학교 교수 조지 하인의 구성주

의박물관 이론을 영국 자연사박물관 학예관인 로저 마일즈가 반박하고 하인이 재반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Hooper-Greenhill, 2006; Bitgood, 1997; Miles, 1997; Hein, 1997). 여기에서는 구성주의 인식론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이에 따른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요 논점은 ‘교육 방법은 인식론에 따라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교과 보다는 학습자를 우선시 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관람자들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전시도 나름 훌륭한 전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Bitgood, 1997; Miles, 1997).

이후에 하인의 『Learning in the Museum』(1998),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교육실장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의 『A Common Wealth: Museums in the Learning Age』(1999), 포크와 디어킹의 『Learning from Museums: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s』(2000) 등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박물관교육 연구가 나타났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박물관교육과 여흥을 위한 기능이 강조되었다(Hooper-Greenhill, 1994a). 이러한 연구들은 21세기에 발표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박물관교육 연구의 초석이 되었으며 박물관교육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닦았다.

21세기에 들어서자 서구에서는 박물관교육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서구 박물관교육 분야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지는 논의는 박물관경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학습의 본질과 박물관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및 학습경험의 극대화 방법 등이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학습경험의 연관성이나 관람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박물관에서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고 있다. 현재 서구 박물관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박물관 소장품들을 더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과 즐거움을 관람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III. 결론

서구 박물관의 역사는 곧 박물관을 통한 교육의 역사였다. 박물관과 그 유사 기관들은 고대부터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대 예술 연구에 대한 관심과 박애정신의 발흥으로 시작된 서구의 ‘유사박물관’은 중세에 들어서 예술을 통한 적극적인 교화를 위해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17세기에 현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박물관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박물관은 인문적 호기심과 진리의 탐구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18~19세기를 통하여 공공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람자 층이 확대되고 교육은 박물관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세기에 학교가 공공교육을 주관하면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년간은 교육이 박물관의 하위 기능으로 격하되었다.

서구에서 공공 박물관의 역사를 17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300여 년으로 보았을 때,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박물관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지 않은 기간은 넓게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엄밀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불과 20여 년 남짓한 시기이다. 더구나 박물관교육이 하위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이 기간에도 전시와 연구라는 ‘교육적’ 활동은 박물관의 핵심 기능으로 남아있었다. 서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던 박물관의 정체성이 20세기 초·중반에야 수집과 보존,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기

위해 들여온 노력을 고려한다면 매우 역설적이다.

1960년대 말부터는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소통과 학습이 강조되며 교육이 다시 박물관의 핵심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21세기에는 박물관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이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과 이론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구에서 박물관교육은 역사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졌지만 교육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요약 】

박물관교육은 박물관 고유 기능과 교육의 기본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기관이자 공간인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물관교육은 그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다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박물관교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 책에서는 서구 박물관교육의 역사에서 17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어원적·기능적으로 관련된 ‘유사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고찰하고 그 이후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박물관교육의 발전 과정과 현재 서구 박물관교육계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았다. 고대부터 르네상스시대까지는 무세이온이나 신전, 교회와 같은 ‘유사박물관’이 현대적 의미에서 박물관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경이로운 방”과 같은 ‘초기 박물관’이 등장하였다. 계몽주의가 풍미한 17세기부터 본격적인 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박물관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어 18~19세기에는 공공 박물관의 등장과 함께 교육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까지는 박물관교육이 하나의 하위 기능으로 변화하였다. 1960년대부터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교육이 다시 박물관의 핵심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21세기에는 박물관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이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서구에서 박물관교육은 역사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졌지만 교육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 김인희, 2001, 「박물관과 교육에 대한 종합 논의」,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 , 2002, 『교육사·교육철학 강의(개정판)』, 서울: 문음사.
- , 2009, 『다문화시대 박물관교육』, 서울: 문음사.
- 노성두, 2004, 『그리스 미술 이야기』, 서울: 살림.
- 박지향, 199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 백 령, 2005,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교육』, 서울: 예경.
- 서원주, 2007,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박물관교육연구』 1호, 65-84.
- 송동근, 양홍석, 최석영, 2002, 『문화관광과 박물관』, 서울: 민속원.
- 이난영, 2006,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 임종덕, 2001, 「미국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미」,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서울: 살림.
- 전태일, 2001, 「박물관과 교육: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 차문성, 2008, 『근대박물관, 그 형성과 변천』, 파주: 한국학술정보.
- 차하순, 1991, 『서양사총론(개정판)』, 서울: 탐구당.
- 최석영, 2004, 『한국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울: 서경.
- Alexander, Edward P., 1997, *The Museum in America: Innovators and Pioneers*,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 , 2008, *Museums in 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Functions of Museums* (2nd ed.), Plymouth: AltaMira.
- Ambrose, Timothy and Crispin Paine, 2006, *Museum Basics* (2nd ed.), London: Routledge.
- Anderson, David, 1999, *A Common Wealth: Museums in the Learning Ag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 Bazin, Germain, 1967, *The Museum Age*, trans. Jane van Nuis Cahill, New York: Universe Books.
- Bennett, Tony,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Bitgood, Stephen, 1997, 'The Hein-Miles Debate: An Introduction, Explanation, and Commentary', *Visitor Behavior* 12 (3): 3-7.

- Black, Jeremy, 2003, *Italy and the Grand Tour*,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Boyd, William (저) 이홍우, 박재문, 유한구 (공역), 2008, 『서양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The British Museum (편) 서원주 (역), 2004, 『대영박물관(한국어판 도록)』,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 Burcaw, G. Ellis, 1997, *Introduction to Museum Work* (3rd ed.),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 Casson, Lionel, 2001, *The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Davies, Norman, 1997, *Europe: A History*, London: Pimlico.
- Davis, John R., 2006, *The Great Exhibition*, Stroud: Sutton.
- Falk, John H. and Lynn D. Dierking, 1992, *The Museum Experience*, Washington DC: Whalesback.
- _____, 2000, *Learning from Museums: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 Farcy, Elisabeth and Frédérique Jubien. (eds), 1994, *The Louvre*, Paris: Guide Gallimard.
- Giraudy, Danièle and Henry Bouilhet (공저) 김혜경 (역), 1996,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화산문화.
- Gombrich, Ernst Hans Josef (저) 백승길, 이종승 (공역), 1997,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 Graf, Bernhard, 1994, 'Visitor Studies in Germany: Methods and Examples', in Roger Miles and Lauro Zavala (eds) *Towards the Museum of the Futur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Harrison, Julia D., 2005, 'Ideas of museums in the 1990s', in Gerard Corsane (ed), *Heritage, Museums and Galleries: An Introductory Reader*, London: Routledge.
- Hauser, Arnold (저) 백낙청 (역), 1999a,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서울: 창작과 비평사.
- Hauser, Arnold (저) 염무웅, 반성완 (공역), 1999b,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Hein, George E., 1997, 'A Reply to Miles' Commentary on Constructivism', *Visitor Behavior* 12(3): 14-15.
- _____, 1998, *Learning in the Museum*, London: Routledge.
- _____, 2006, 'Museum Education', in Sharon Macdonald (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Oxford: Blackwell.
- Hein, Hilde S., 2000, *Museum in Transition: A Philosoph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Hooper-Greenhill, Eileen, 1991,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Museum Education from the 1790s to the 1990s', *Journal of Education in Museums* 12: 1-3.
- _____, 1994a, *Museum and Gallery Education*,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_____, 1994b, 'Museum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Roger Miles and Lauro Zavala (eds.), *Towards the Museum of the Future*, London: Routledge.
- _____, 2006, 'Studying Visitors', in Sharon Macdonald (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 Oxford: Blackwell.
- ICOM, 'ICOM Statutes'. Online: <http://icom.museum/statutes.html>(Accessed 25th May 2010).
- Jackson, Anna. (ed.), 2001, *V&A: A Hundred Highlights*, London: V&A Publications.
- Jones, Henry Stuart, 1940,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Charlton T and Charles Short, 1879., *A Latin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Geoffrey, 1992, 'Museums and Their Precursors: A Brief World Survey', in John M. A. Thompson (ed.), *Manual of Curatorship*,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McClellan, Andrew, 2008, 'Art Museums and Commonality: A History of High Ideals', in Daniel J. Sherman (ed.), *Museums and Difference*,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McClellan, Andrew, 2003, 'A Brief History of the Art Museum Public', in Andrew McClellan (ed.), *Art and Its Publics: Museums Studies at the Millennium*, Oxford: Blackwell.
- Miles, Roger, 1997, 'No Royal Road to Learning: A Commentary on Constructivism', *Visitor Behavior* 12(3): 7-13.
- Moffat, Hazel and Vicky Woollard, 1999, 'Making This Manual Work for You', in Hazel Moffat and Vicky Woollard (eds.), *Museum and Gallery Education: A Manual of Good Practice*,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 Musée du Louvre, 'History of the Louvre'. Online: http://www.louvre.fr/llv/musee/histoire_louvre.jsp?bmLocale=en (Accessed 26th April 2010).
- Schwanitz, Dietrich (저) 인성기 외 (공역), 2001,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 들녘.
- Weil, Stephen E., 2002, *Making Museum Matter*,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Wilson, David, 2002, *The British Museum: A History*,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 Woodhead, Peter and Geoffrey Stansfield, 1994, *Keyguide to Information Sources in Museum Studies* (2nd ed.), London: Mansell.